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 역사적 가치 인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 예고... 3기 봉화 나란히 축조된 사례 드물어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이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 됐다. 전북자치도는 30일 동안 의견 수렴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은 무주읍 당산리 산2번지 해발 약 420m 산능선 상부에 위치한 고대 봉화 유적(봉화대 3기, 방호석축, 집수시설, 추정성벽 등)으로, 2021년 국립근산대학교 박장근 교수에 의해 처음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호 봉화의 기초부에서 토기 조각이 출토되는 등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이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은 고대 방어시설과 지역사 연구의 핵심 자료"라며, "도 기념물 지정은 무주군이 지난 3년에 걸쳐 진행한 학술조사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이 지닌 고고학적·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정

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문화유산 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 무형유산 보유자 2명에 인정서 교부

전북향토민요 신미숙·악기장 최병용

세계적인 무형유산도시인 전주를 주무대로 활동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힘써온 장인들이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을 받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6일 오후 3시, 전주시장실에서 올해 새롭게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인정된 △전북향토민요 신미숙 △악기장 최병용 등 2명에게 인정서를 교부했다.

이로써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는 △국가무형유산 6명 △도 무형유산 44명 △보유단체 3단체 △명예보유자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먼저 전북향토민요(토속민요) 신미숙 보유자는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민요반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제21회 상주전국민요경창대회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북향토민요를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도내에서 민중들이 부르는 노동요와 일상생활에 우리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담은 곡들을 수집·정리하기도 했다. 이러한 토속민요들은 그 지역의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불구하고 전승 체계가 없어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신미숙 보유자의 노력으로 전승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6일 전주시장실에서 올해 새롭게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인정된 전북향토민요 신미숙(사진 오른쪽), 악기장 최병용(사진 왼쪽) 등 2명에게 인정서를 교부했다.

또한 악기장(거문고) 최병용 보유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악기장 최병용 명예보유자의 아들로, 가업을 이어 2대째 전통을 계승해 거문고를 제작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악기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란 최병용 보유자는 아버지에게 배운 전통의 방식을 고수할 뿐 아니라, 좋은 악기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연구 활동의

결과 아버지를 이어 악기장으로 인정받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나날이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다"면서 "세계 무형유산 도시 전주는 앞으로 무형유산 전승과 보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희정 기자

'소년공 재명이가 부르는 노래'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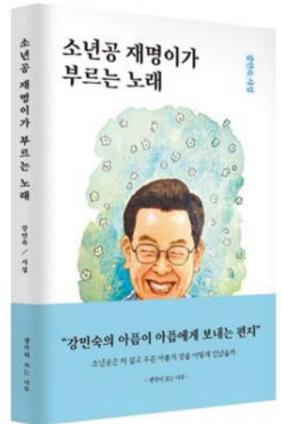
강민숙 시인 시집... 이재명 대선 후보 유년기·소년공 시절 삶 담아

1990년대 베스트셀러 '노을 속에 당신을 묻고'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강민숙 시인이 신작 시집 '소년공 재명이가 부르는 노래' (도서출판 생각이 크는 나무)를 펴냈다.

이번 시집은 70편의 시로 구성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년기와 소년공 시절의 삶을 따뜻하고도 절절한 시어로 담아냈다.

강민숙 시인은 남편의 사망사고와 둘째 아들의 출생사고를 동시에 해야 했던 기구한 운명 속에서도 '참슬희'를 이끌며 삶과 문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온 대표적 여성 시인이다.

이번 시집은 그녀의 여섯 번째 작품집이다.



시인은 "빠져리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마음으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곳곳이 꿈을 키워온 소년공 이재명의 삶을 정성껏 시로 빚어냈다.

대표 시 '내 하늘'에서는 "가난에 매 맞아 시퍼렇게 멍든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을, '하늘 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에서는 방패연에 꿈을 담아 날렸던 소년의 희망을 섬세하게 그려내어 주목받고 있다.

시집에는 노동의 현장에서 굽은 팔이 도리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결기로 변모하는 과정을 담은 시편들이 다수 포함됐다.

시집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내 생일을 모른다', '드디어 기능공이 되었다', '나도 교복을 입고 싶었다', '정치가 뭐냐고' 등 각각의 시는 한 인간의 성장기이자,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깊이 있게 성찰하게 만든다.

한편, 강민숙 시인은 책에서 "나의 아픔을 닮은 한 사람을 만났고, 그를 위해 과감히 붓을 들었다"며 "세상의 낮은 자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앞으로도 시인의 길을 쉬지 않고 뚜벅 뚜벅 걸겠다"고 말하며 "집 반 응이 좋으면 2집 굵은 세상 굵은 팔로 펴리라"라는 시집을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남원의 봄을 대표하는 꽃 축제, 제29회 지리산 운봉바래봉 철쭉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29회 남원 지리산 운봉바래봉 철쭉제 성료

남원의 봄을 대표하는 꽃 축제, 제29회 지리산 운봉바래봉 철쭉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철쭉제는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30일간 지리산 바래봉 일원에서 개최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발길 연일 이어졌다. 바래봉 철쭉을 담으러 온 방문객은 약 1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남원시를 찾는 봄철 관

광 수요의 핵심 축제로 자리매김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철쭉제도 자연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산신제, 먹거리장터 지역 농특산물 홍보, 축하 공연 및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